

South Africa 1 - 0 South Korea — 데이터 기반 전술 칼럼 (2026-06-25)

한 팀은 박스에 쏟아부었고, 한 팀은 골망을 흔들었다 — 크로스의 파도와 그 한계

2026년 6월 25일, 월드컵 3차전 무대에서 만난 South Africa와 South Korea의 90분은 점유율과 공격 시도, 그리고 박스 안을 채운 숫자에서 극명한 대비를 남겼다. 최종 스코어는 South Africa 1-0 South Korea. 하지만 단순한 결과 뒤에는, South Korea가 보여준 집요한 크로스 공세와 그에 맞선 South Africa의 응집된 수비, 그리고 단 한 번의 결정적 역습이 교차했다. 대회 조별리그의 마지막 관문에서, 이 경기는 "누가 더 많은 공격을 했는가"와 "누가 더 효과적인 공격을 했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들게 했다.

이날의 전술적 분기점은 South Korea의 크로스 종결 의존도, 즉 공격의 마무리를 측면에서 올리는 패턴이 얼마나 집요하게 반복됐는가에 있었다. 두 팀의 전술 변수 중 가장 큰 격차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다. South Korea는 90분 동안 무려 33번의 크로스를 시도하며, South Africa보다 월등히 높은 측면 종결 비중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South Korea가 박스 주변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측면으로 벌리고, 곧장 크로스를 선택하는 공격 흐름이 반복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크로스 성공률은 21.2%로, 시도 대비 효율은 다소 낮았지만, South Korea의 공격이 한 방향으로 쏠렸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South Korea가 점유율(68%)과 패스 시도(720회)라는 압도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공격이 박스 안에서 측면 크로스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수렴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South Africa는 점유율 32%, 패스 시도 339회에 그쳤지만, 크로스 시도는 8회에 불과했다. 그들은 박스 근처에서 측면보다는 중앙을 선택하거나, 짧은 연결 뒤 빠른 슈팅으로 공격을 마무리했다. 이 극단적 스타일의 충돌, 특히 South Korea의 크로스 종결 패턴이 이 경기의 본질을 규정했다. 그리고 결과는, 크로스의 파도보다 단 한 번의 역습이 더 날카로웠음을 말해준다.

한 방향으로 흐른 South Korea의 공격, 그리고 그 한계

South Korea가 보여준 공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격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지나치게 일정한 패턴에 갇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 팀은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68%)과 720회의 패스 시도를 기록하며, 경기의 리듬을 장악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곧바로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South Korea는 공격을 전개할 때, 중원에서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나, 박스 근처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측면으로 공을 벌린 뒤 크로스에 의존했다. 실제로 33회의 크로스 시도 중 성공은 7회(21.2%)에 그쳤고, 이는 높은 시도 횟수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수치다.

이 패턴은 South Korea의 공격이 박스 안에서 다양한 시퀀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박스 내 슈팅은 5회로, 전체 슈팅(8회) 중 절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이 중 빅 찬스는 단 1회에 불과했다. South Korea는 최종 3분의 1 진입(81회)과 성공적인 패스 연결(643회)에서 South Africa를 압도했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측면에서 반복되는 크로스가 상대 수비에 읽히며, 박스 내에서의 창의적 움직임이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실종됐다.

패스 의존도가 높은 팀답게, South Korea는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통해 공격의 시발점을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Gi-Hyuk Lee(91/106), Hwang In-beom(71/78), Han-Beom Lee(75/78) 등 수비와 미드필드에서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선수들이 다수 포진했다. 하지만 이 연결은 대부분 박스 근처에서 측면으로 쏘리며, 결국 크로스라는 단조로운 종결 패턴으로 귀결됐다. South Korea가 경기 내내 만들어낸 박스 내 터치(19회)와 크로스 시도(33회)의 조합은, 점유와 패스의 우위가 실제로는 공격의 다양성 부족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South Africa의 응집력과 역습의 날카로움

반면 South Africa는 점유율(32%)과 패스 수(339회)에서 크게 밀렸지만, 이들의 공격은 훨씬 간결하고 직접적이었다. South Africa는 중원에서 짧은 연결로 공을 탈취한 뒤, 빠르게 전방으로 전개하는 데 집중했다. 크로스 시도는 8회에 불과했으며, 이 중 성공은 단 1회. 대신 이들은 중앙을 통한 역습과 박스 근처에서의 빠른 슈팅으로 공격을 마무리했다.

이런 전략은 슈팅 분포에서도 드러난다. South Africa는 전체 슈팅 13회 중 5회를 중앙 페널티 박스 안에서, 5회를 중앙 박스 밖 근거리에서 시도했다. 특히, 이들의 유효 슈팅(4회)과 기대득점(xG 1.1)은 South Korea(유효 슈팅 3회, xG 1.0)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South Africa가 적은 점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한정된 기회에서 더 높은 위협을 만들어냈다는 방증이다.

South Africa의 공격이 가장 빛난 순간은 후반 63분, Thapelo Maseko의 선제 결승골 장면이었다. 이 득점은 전형적인 빠른 역습 상황에서 나왔고, South Korea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South Africa는 박스 내 터치(12회)와 최종 3분의 1 진입(39회)에서 열세였지만, 이 적은 숫자의 공격도 대부분 빠르고 직접적으로 종결됐다. 이는 South Africa가 공격의 시작-전개-종결을 최대한 단순화하며,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음을 의미한다.

팀 통계 비교: 점유율과 패스의 함정

지표	South Africa	South Korea
포메이션	4-2-3-1	3-4-2-1
팀 평점	7.1	6.8
점유율(%)	32	68
기대득점(xG)	1.1	1
전체 슈팅	13	8
유효 슈팅	4	3
박스 안 슈팅	5	5
빅 찬스	1	1
코너킥	4	6
파울	7	9

지표	South Africa	South Korea
패스 시도	339	720
성공 패스	277	643
최종 3분의 1 진입	39	81
태클 성공률(%)	55	73
듀얼 승률(%)	48	52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South Korea가 경기의 볼 소유와 패스 연결에서는 압도적이었으나, 실제로 공격의 다양성이나 효율성에서는 South Africa가 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South Korea는 최종 3분의 1 진입(81회)과 패스 성공(643회)에서 두 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지만, 박스 안 슈팅(5회)이나 빅 찬스(1회)는 South Africa와 동률에 그쳤다. 점유율과 패스가 곧바로 위협적인 공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점유의 함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기였다.

세트피스, 박스 진입, 크로스: 수치로 본 공격의 실체

South Korea는 코너킥 6회, 크로스 33회, 박스 내 터치 19회로, 수치상 박스 근처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크로스 성공률(21.2%)은 시도 대비 낮은 편이었고, 박스 내 슈팅(5회) 역시 전체 공격 대비 효율이 떨어졌다. South Korea의 크로스 의존은 경기 내내 변하지 않았고, 이는 상대 수비가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South Africa는 코너킥 4회, 크로스 8회, 박스 내 터치 12회로, 전체적인 공격 횟수는 적었지만, 슈팅의 질과 효율성에서 앞섰다. 이 팀은 세트피스에서 직접적인 위협을 만들진 못했으나, 역습과 박스 근처에서의 빠른 2~3차 연결로 결정적 슈팅을 만들어냈다. 특히, South Africa의 유효 슈팅 4회 중 상당수가 박스 안에서 시도됐다는 점은, 이 팀의 공격이 얼마나 실질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슈팅 지표	South Africa	South Korea
전체 슈팅	13	8
유효 슈팅	4	3
골	1	0
박스 안 슈팅	5	5
박스 밖 슈팅	8	3
주요 슈팅 지역	중앙 박스 밖 근거리(5), 중앙 페널티 박스 안(5)	중앙 페널티 박스 안(3), 중앙 박스 밖 근거리(3)

이 표 역시 South Africa가 적은 공격 기회 속에서도 박스 안에서의 실질적인 슈팅을 만들어냈고, South Korea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 효율이 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결승골 시퀀스: South Africa의 단 한 번, 그리고 그 차이

후반 63분, South Africa의 Thapelo Maseko가 기록한 결승골은 이 경기의 모든 흐름을 압축했다. South Korea가 높은 라인과 점유를 유지하며 진영을 넓게 쓴 상황, South Africa는 중원에서 공을 탈취한 뒤 단 두 번의 패스 만에 빠르게 전방으로 공을 연결했다. 이 장면에서 South Africa의 공격은 평소보다 더욱 직접적이었고, 박스 안에서의 정확한 마무리로 연결됐다.

이 골 시퀀스는 South Africa가 경기 내내 보여준 '간결함'과 '효율성'의 결정체였다. 반면 South Korea는 이 장면에서조차 수적 우위와 점유를 살리지 못하고, 전환 상황에서의 수비 조직력 부재로 뼈아픈 실점을 허용했다. South Africa는 이 한 번의 역습으로, 90분 내내 반복된 South Korea의 단조로운 패턴을 단숨에 무력화했다.

결국 이 한 장면이, 다양한 공격 시퀀스 없이 반복되는 패턴에 갇힌 팀과, 단 한 번의 날카로운 전환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 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왜 South Africa가 이겼는가: 효율의 한 방, 반복의 벽을 넘다

South Africa의 승리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90분 내내 South Korea가 점유율 68%, 패스 720회, 박스 진입 81회라는 압도적인 볼 소유와 전진 시도를 반복했지만, South Africa는 자신들의 진영에서 침착하게 버티며 결정적 순간만을 노렸다. 실제로 두 팀의 공격 방식은 경기 내내 극명하게 갈렸다. South Korea는 크로스 33회(성공 7회)와 높은 패스 의존도를 바탕으로 넓게 벌려가는 전개를 반복했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5회)과 빅 찬스(1회) 창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South Africa는 전체 슈팅 13회 중 5회를 박스 안에서 가져갔고, 무엇보다 후반 63분 단 한 번의 빠른 역습에서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지표	South Africa	South Korea
포메이션	4-2-3-1	3-4-2-1
팀 평점	7.1	6.8
점유율(%)	32	68
기대득점(xG)	1.1	1
전체 슈팅	13	8
유효 슈팅	4	3
박스 안 슈팅	5	5
빅 찬스	1	1
코너킥	4	6
파울	7	9
패스 시도	339	720
성공 패스	277	643
최종 3분의 1 진입	39	81
태클 성공률(%)	55	73
듀얼 승률(%)	48	52

이 표가 말해주는 것은, South Korea가 전진과 점유에서 모든 수치를 앞섰으나, 실제로는 골문 앞에서의 효율과 결정적 순간의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는 점이다. South Africa는 적은 기회 속에서도 한 번의 역습을 놓치지 않았고, 수비에서는 42회 클리어링과 15회 인터셉트로 상대의 파상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결국, South Africa는 '많이 가진 팀'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쓴 팀'의 전형을 보여줬다.

결론: 반복의 한계, 효율의 승리

이 경기는 South Korea의 전술적 우위가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 축구의 복잡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South Korea는 측면 종결 비중, 공격 평균 위치, 패스 의존도라는 세 가지 핵심 변수 모두에서 South Africa를 압도했다. 박스 진입 횟수, 점유율, 패스 성공률 등 다수의 지표에서 우위에 섰지만, 이 반복되는 공격 패턴은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33회의 크로스 시도는 다양성보다는 단조로움으로 귀결됐고, 박스 안에서의 창의적 침투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South Africa는 수비 진영에서의 집중력과 단 한 번의 전환 시 효율성으로, 이 모든 반복의 벽을 단숨에 돌파했다.

결국 2026년 6월 25일 월드컵 3차전의 1-0이라는 스코어는, South Korea가 보여준 전술적 '양'이 아니라 South Africa가 증명한 '질'의 승리였다. South Korea의 스타일은 데이터상으로는 이상적이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움과 결정력 부족이 뚜렷했다. 반면 South Africa는 적은 찬스에도 집중력을 극대화하며, 한 번의 역습으로 모든 것을 가져갔다. 이 경기는 "많이 가진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쓴 팀이 이긴다"는 축구의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다음 라운드로 이어지는 이 결과는 South Korea에게는 공격 패턴의 다변화와 박스 내 침투의 질적 개선이 시급함을, South Africa에게는 수비적 안정성과 전환 효율의 강점을 더욱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South Korea의 측면 종결과 패스 의존도가 한계에 부딪힌 이번 경기는, 토너먼트 무대에서 단순 반복이 아닌 창의적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줬다. South Africa는 이날의 승리로, '효율'이라는 단 하나의 무기가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데이터 출처: Sofascore 와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분석연구센터 **AI:fficial Soccer**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리뷰입니다.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분석연구센터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분석연구센터 AI:fficial 로부터 생성된 콘텐츠입니다.